

위치적 유표성과 한국어의 ㄴ삽입*

박선우
(고려대학교)

Park, Sunwoo. 2005. Positional markedness and /n/-insertion in Korean.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11.2. 323-335. This paper introduces an alternative analysis of /n/-insertion in Korean. Korean prefixed words and compounds undergo /n/ or /l/ insertion only when their second constituent has an initial vowel /i/ or glide /j/. Therefore morphological factors such as alignments with syllable boundary cannot account for /n/-insertion. I propose that the positional markedness of word-initial /n/ or /l/ were reversed into the positional unmarkedness of inserted /n/ or /l/. The result of /n/-insertion is analogous to compounds which never undergo deletion of word-medial /n/ or /l/. Hence, insertion of /n/ or /l/ is a type of analogical extensions, which is parallel with intrusive-r of British English. Nevertheless, the inversion of positional markedness proposed in this work is different from the inversion of rule(deletion → insertion). While the insertion rule is directly induced by the deletion rule, positional unmarkedness constraints interact with the other faithfulness, markedness and alignment constraints. (Korea University)

Keywords: /n/-insertion, word-initial deletion, positional markedness, analogy

1.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ㄴ삽입’ 혹은 ‘ㄴ첨가’로 불려왔던 한국어의 음운현상을 유추적 관점으로 재조명하고 제약기반 이론의 틀 내에서 분석하는 것이다.¹ ㄴ삽입은 단어의 합성과 접두파생, 혹은 통사구의 형성시 선행 요소와 후행 요소 사이에 /n/가 삽입되는 현상이다. ㄴ삽입은 선행 요소가 음절말음을 갖고, 후행 요소는 /i/나 /j/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음운론적 조건과, 후행 요소가 자립 형태소이어야 한다는 형태론적 조건을 함께 가지고 있다.

- (1) 가. 숨+이불[숨니불], 샅+일[샷닐], 봄+여름[봄너름]
나. 기업+예산[기업예산], 직행+열차[지캥열차]
다. 銀杏+잎[은행닙], 白+여우[뱅너우], 空+일[공닐],
알+藥[알냐], 바깥+兩班[바깡냥반]
- (2) 가. 꽃+웃[푼눈], 막+일[망닐], 맨+입[맨닙],
깃+이기다[진니기다], 설+익다[설릭따]

* 이 논문은 2004년 12월 3-4일 영남대학교에서 개최되었던 2004년 한국음운론학회 겨울 학술대회의 발표원고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논문의 심사과정에서 문제점의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부족하거나 잘못된 부분은 모두 연구자의 책임이다.

¹ ‘ㄴ삽입’은 ‘ㄴ첨가, ㄴ덧나기’ 등으로도 불리고 있는데, 첨가라는 용어는 반드시 어중에서 일어나는 현상만을 지칭하지 않으며, 덧나기는 덧붙는다는 의미가 있으므로 어떠한 요소의 이중적 출현을 뜻할 수 있다. 따라서 ‘ㄴ삽입’이라는 용어가 적절하며, 현재 통용되고 있는 대역어 ‘/n/-insertion’ 역시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 나. 新+女性[신녀성], 空+念佛[공념불], 總+演習[총연습]
 (3) 가. 옛 이야기, 한 일, 옷 입다, 서른 여섯
 나. 세계적 유물, 정신적 이유
 다. 뜨거운 열, 쓴 약, 깔끔한 유니폼
 (4) 가. 이죽+이죽[이중니죽/이주기죽], 야금+야금[야금냐금/야그마금],
 점+열[점닐/거멸], 금+융[금냥/그똥]
 나. 沒+人情[모린정], 沒+廉恥[모렴치], 新+印象主義[신인상주의],
 漢+藥材[하낙재], 送別+宴[송벼련], 첫+印象[처딘상]

(1)-(3)은 각각 합성어(어근+어근), 파생어, 통사구의 예로서 ‘가’항은 고유어, ‘나’항은 한자어, ‘다’항은 혼종어이다. (4가)는 삽입이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용례들이며, (4나)는 예외적으로 삽입이 일어나지 않는 예들이다.²

논의의 범위를 단어 이하로 한정한다면 ㄴ삽입의 양상은 단어의 종류(고유어, 한자어, 혼종어)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고유어에서는 두 단어로 이루어진 구단위, 합성어, 접두파생어에서 삽입이 일어난다. 이와 달리 한자어에서는 단어의 구성 방식에 따라 그 양상이 달라지며 대체로 삽입을 하지 않고 본음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 또한 후행 요소의 두음이 /j/가 아니라 /i/인 경우에는 단어의 구성 방식과 관계없이 삽입이 일어나지 않는다. 혼종어의 삽입 여부는 대체로 후행요소에 의해 결정된다.³

현재까지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온 주요 논의사항은 몇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1) 이 현상을 삽입, 탈락 중 어떠한 과정으로 다룰 것인가? (2) 자음의 삽입(혹은 탈락)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3) 만약 삽입의 과정이라면 ㄴ이 삽입되는 까닭과 그 기능은 무엇인가? (4) 삽입이 일어나는 환경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5) 삽입자음 ㄴ과 사이시옷은 어떤 관계인가? (6) 단어의 종류나 화자에 따라 삽입과 연음화의 선호도는 어떻게 바뀌는가?

본 연구는 이들 중 (1)-(3)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Zoll(1998)에서 제안된 위치적 유표성(Positional Markedness)의 관점에서 한국어의 두음 법칙을 살펴보고, 위치적 유표성으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어중의 ㄴ삽입을 무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가정에 근거한 새로운 분석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앞으로 논의될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선행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ㄴ삽입과 두음탈락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겠다. 제4장에서는 최적성이론의 틀에서 구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겠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논의를 정리하고 남겨진 문제들을 살펴보겠다.

² ‘ㄴ삽입’에 대한 규범은 현행 표준발음법(제7장 음의 첨가) 제29항과 제30항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규범과 달리 국립국어연구원의 표준발음 실태조사에 의하면 고유어나 한자어나 전반적으로 삽입보다는 연음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선철 2003). 또한 방언에 따라 삽입이 적용되는 운율적 단위에 차이가 있음도 Lee(2004)에서 논의되었다.

³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김유범 외(2002)를 참조하기 바란다.

2. 선행연구 검토

그 명칭으로도 알 수 있듯이 전통적으로 ㄴ삽입은 삽입현상으로 간주되어 왔지만 반대로 ㄴ탈락으로 보기도 한다.⁴ 삽입으로 보는 견해는 삽입의 원인을 중심으로 형태론적 동기에 중점을 둔 논의와 음운론적 동기에 중점을 둔 논의로 나뉜다.

Chung(1980), 기세관(1990a, 1990b, 1991, 1999), 김정우(1998)에서는 /n/를 후행 요소의 자립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가진 요소로 본다. /n/가 삽입된 결과 선행어의 음절 말음이 후행어의 음절초로 재음절화되지 않으므로, 후행 형태의 음절구조가 그대로 유지된다. Shin(1997: 210-211) 역시 삽입의 원인을 형태소와 음절경계를 일치시키는 정렬제약(Align)과 음절의 공명도 원리(Syllable Contact Law)에서 찾고 있다. Lee(2004)에서는 지각적인 측면에서 영역 강화(domain-initial strengthening) 작용의 일환으로 운율적 단위의 왼쪽 가장자리에 삽입이 일어난다고 보는데, 후행 요소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위의 논의들과 공통점을 갖는다. 하지만 고광모(1991), 김정우(1998)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밤알’ [pamal], ‘집안’ [tciban]처럼 후행 요소가 /i/, /j/로 시작되지 않는 한 삽입 없이 연음화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이러한 기능론적 관점은 한계를 지니고 있다.⁵

이러한 설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정순(1986), 기세관(1990a, 1990b), 김정우(1994, 1998)에서는 구개음 [ŋ]가 삽입되는 원인을 음성학적·음운론적 요인에서 찾고 있다. 음절말음과 /i/, /j/을 연이어 발음하는 과정에서 급격한 변화를 완화시켜주는 삽입자음으로 모음과 유사한 성격의 비음이 삽입된다는 것인데, 이러한 설명 역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형태적 구성이 ‘단어+단어’, ‘접두사+어근’이 아니라면, 동일한 음운론적 환경에서는 삽입이 일어나지 않으며, 둘째, 같은 조음위치를 갖는 분절음으로 /l/, /s/, /t/ 등이 있으나 유독 /n/가 삽입된다는 점이다.⁶

Kim-Renaud(1974: 148-149)에서는 선행요소의 음절말 자음이 연음될 때 나타날 수 있는 ‘ㄷ구개음화’를 막기 위하여 /n/가 삽입되었다는 독특한 제안을 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고광모(1991)에서 비판을, 김정우(1994)에서 지지를 받았는데, 그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근대한국어 시기의 구개음화 양상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근대한국어의 구개음화는 주로 어근 내부에서 일어났으며 복합명사나 파생어에서는 잘 일어나지 않았다. 만약 구개음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삽입이 일어났다면 근대한국어 시기에 이미 /n/가 삽입된 합성어나 접두과

⁴ 최현배(1931/1971)에서는 이를 일종의 첨가 내지는 삽입현상(소리를 더하여 내는 것)으로 보고 있다. “|(1 ㅈㅅㅅ)를 비롯한 생각씨(觀念詞)가 그 위에 받침으로 끝진 말과 이음적에는 군ㄴ을 그 첫소리로 내나니...” (최현배 1971: 134).

⁵ 김정우(1998)에서는 만일 선행어의 말음이 연음되어 재음절화되는 경우, 그대로 연음되는 것이 아니라 음절말 중화를 겪은 후 연음되므로 형태소의 인식이 매우 어렵진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지니고 있으며, 역사적인 ㄴ탈락 현상으로 말미암아 어두에 /mi-/ , /nj-/를 지닌 고유어가 국어의 어휘항목에서 사라져 다른 어사와 충돌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다.

⁶ 김정우(1998: 801)에서는 두 번째 문제에 대하여 /l/는 /l/ 이외에 다른 받침 다음에 올 수 없다는 분포상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s/는 공명도에 있어서 /n/보다 모음과 가깝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 설명하고 있다.

생어들이 많이 관찰되어야 할 것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게다가 구개음화가 근대한국어 시기에 전면적으로 적용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적용되었다는 점, 무엇보다도 선행요소의 발음이 ㄱ구개음화와 상관 없는 유음이나 비음인 경우에도 삽입이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삽입과 구개음화의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다.

성낙수(1987a, 1987b, 1995)에서는 단어합성시 /n/가 삽입되는 것이 아니라 단일어와 어두 환경에 나타날 경우 탈락되었다고 본다. 선·후행 단어간의 합성에서 후행 요소의 단어들 중에는 역사적으로 /n/를 보유하고 있었던 경우가 많다. ‘숨이불, 앞이마, 나뭇잎’의 ‘이불, 이마, 잎’은 중세국어 시기에 ‘니불, 니마, 뇨’이었지만, 17-18세기 교체기에 어두의 /n/가 탈락되었다. 성낙수(1987a, 1987b)의 논의를 요약하자면 형태소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n/를 없었던 것이 삽입되는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옛말과 방언에서 구개음화된 /n/가 어두에서 잘 쓰이고 한자어에서는 /n/의 개재형과 탈락형을 모두 인정하므로, /n/가 개재된 형태를 기본 형태로 삼고 그것이 어두에 가면 생략되는 것으로 처리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고광모(1991)에서는 모든 고유어의 기저형을 /ni-/와 /nj-/로 설정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못하며 ‘뭇잎어’[몬니저~모디저]와 같은 수의적 현상도 기술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근대한국어 시기 이전의 자료나 방언과 상관이 없는, 즉 /n/의 탈락과 무관한 단어들에서도 삽입은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

(5) 독점옥[독점옥]	두통약[두통냐]	뒤틀일[뒤틀닐]
마찰열[마찰렐]	문산역[문산녁]	불여우[불러우]
어학연구[어학년구]	천일야화[쳐닐라화]	첫웃[천눈] ⁷
콩엿[콩넛]		

위의 예에서 ‘연구, 엿, 역, 일, 열, 약, 옥, 여우’ 등은 역사적으로 두음탈락과 무관한 단어들임에도 불구하고 /n/가 삽입된다. 또한 합성어와 파생어 형성과는 별도로 구구성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관찰되므로 /n/는 입력형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규칙 내지 제약에 의해 삽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⁸

다만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탈락설은 한 가지 장점을 갖고 있다. 탈락설은 삽입자음이 /n/인 까닭과 운율적 단위와 상관없이 /i/와 /j/ 앞에서만 삽입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고광모(1991, 1992)와 오정란(2002)에서는 삽입자음 /n/를 두음탈락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다. 고광모(1991)은 근대한국어 시기 /i/나 /j/ 앞의 /n/가 휴지나 모음 앞에서 탈락함으로써 발생한 ‘/n/-ø’의 교체가 역사적으로 /n/를 갖지 않았던 단어들에게까지 유추적으로 확대되어 삽입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다. /n/가

⁷ ‘웃’의 중세한국어 형태는 ‘숯’이었다. ‘攤: 숯놀 탄’(훈몽자회·초간본 하 10). 이러한 예는 탈락으로는 첫웃[천눈]을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⁸ 최정순(1986)에서는 성낙수(1987a, 1987b)와 반대로 자연생성음운론의 제안을 받아들여 /n/가 탈락된 공식적 형태를 통일된 기저형으로 삼고 모든 단어에 삽입 규칙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탈락된 단독형을 기저형으로 재분석함으로써 /n/→∅가 ∅→/n/로 전도되며, 양 규칙은 상호적인 적용환경을 갖게 된다.⁹

(6) 규칙의 전도 (고광모 1991)

가. ㄴ탈락 : $n \rightarrow \emptyset / \{ \text{Pause}, V \} [_ \{ i, j \}]$

나. ㄴ삽입 : $\emptyset \rightarrow n / C [_ \{ i, j \}]$

규칙의 전도는 영국 영어에 나타나는 ‘삽입-r’(intrusive-r)에 대한 설명에서도 언급되는데, Hock(2003)에서는 ‘삽입-r’을 일종의 유추현상인 ‘형태음소적 확장’(morphophonemic extension)의 예로서 들고 있다. 고광모(1991, 1992)에서 제안된 규칙의 전도 역시 일종의 유추적 확장이라 할 수 있겠는데, 영어의 ‘삽입-r’과 마찬가지로 특수한 환경에서 /n/가 삽입되는 확실한 동기를 보여 준다.

(7) 가. 영어의 ‘삽입-r’ (Hock 2003: 442)

the matter[əθ] was : the matter[ər] is

the idea[əθ] was : X = the idea[ər] is

나. 한국어의 ‘ㄴ삽입’

이(齒) [øi] : 아랫-니 [-ni]

연구 [øj-] : X = 어학-연구 [-nj-]

(7가)의 ‘idea’ 뒤에 입력형과 상관이 없는 ‘삽입-r’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7나)의 ‘연구’는 본래 /n/를 갖고 있지 않지만 ‘아랫니’와 같은 단어에 이끌려 ‘어학연구’에서는 /n/가 삽입된다.

그러나 (6가)의 탈락규칙과 달리 실제로 근대한국어의 ㄴ탈락이 어두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가정은 완벽하지 못하다. 이기문(1972: 69), 홍윤표(1994: 311-2) 등 ㄴ탈락을 다룬 논의에서는 어두에서만 탈락이 일어났다고 본다. 반면 고광모(1991: 3)에서는 비어두에서도 탈락이 일어났다고 보는데 다음과 같은 예들을 제시하고 있다.

(8) 브르낙-(杜詩諺解 15, 13b) > 무르익- (무르익다)

썩넙-(漢淸文鑑 11, 17a) > 꺾입- (꺾입다)

세닐웨(釋譜詳節 13, 57a) > 세이레 (三七日)

하지만 위의 예들은 모두 ‘브르 낙다’(爛), ‘썩 넙다’(衣裳加衣), ‘세 닐웨’(三七日)처럼 단어 내지 어절단위의 분석이 가능하므로, 비어두 환경의 탈락을 통시적 규칙으로 보기는 어렵다. 만약 탈락이 삽입으로 전도되었다고 가정하면, 탈락 환경은 어두에 국한되므로 후행요소가 /i/나 /j/로 시작되는 경우 삽입규칙이 어종의 형태경계에서 전면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선행요소가 폐음절인 경우에만 삽입이 일어나기 때문에 전도규칙에 의한 설명은 양 규칙의 환경이 서로 상호적이지 않다는 문제점을 갖는다.

⁹ 김정우(1994, 1998)에서는 ‘음소배열상의 불균형 극복’이라는 음운론적 동기로서 이러한 논의를 받아들이고 있는데, 여중에 /-(C)ni-/ , /-(C)nj-/가 나타나는 형태에 이끌려 삽입이 일어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오정란(2002)에서는 입력형의 두음 /n/가 완전히 탈락한 것이 아니라 연결선이 끊어진 부동성조(floating tone)처럼 존재하고 있다가 형태적, 음운론적 조건이 만족되는 경우 음절초에 연결되어 실현된다고 본다. 따라서 /n/는 '삽입'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연결'되는 것이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본래 /n/가 없는 입력형, 즉 (5)와 같이 두음탈락과 관련이 없는 형태소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n/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이다. 오정란(2002: 203)에서는 (5)의 예들을 유추적 삽입의 결과로 보고 있는데, 부동음소 /n/의 연결은 형태론적으로, 음운론적으로 긍정적인 기능, 즉 형태소를 보전하고 발음을 용이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원적으로 /n/가 없는 경우에도 유추적 삽입이 일어난다는 것이다.

고광모(1991, 1992)와 오정란(2002)는 두음탈락과 ㄴ삽입을 관련지어 설명하였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삽입을 '유추적 현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공통점을 갖는다. 단지 차이가 있다면 고광모(1991, 1992)에서는 규칙의 전도를 통해 어원적으로 /n/를 가진 요소의 결합과 그렇지 않은 요소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삽입을 (6나)와 같은 삽입규칙으로 함께 다루었지만, 오정란(2002)에서는 각각 /n/의 연결과 유추적 삽입으로 구분하였다는 점이다.

3. 두음탈락과 ㄴ삽입

고광모(1991, 1992)와 오정란(2002)는 전도관계의 양 규칙이 적용되는 환경이 상보적이지 않거나 구체적인 유추과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단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해결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ㄴ삽입을 두음탈락과 상관없는 현상으로 생각할 경우, 가장 큰 문제점은 /i/와 /j/ 앞이라는 음운론적 조건이 후행요소가 자립적 단위가 되어야 한다는 형태적 조건과 서로 관련을 맺을 수 없다는 것이다. 후행요소의 강화를 목적으로 음절의 공명도 원리(Syllable Contact Law)에 의해 /n/가 삽입된다고 보아도 유독 /i/와 /j/ 앞에만 삽입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힘들다. 또한 형태적 조건을 운율적 조건으로 교체하여도 왜 /i/와 /j/ 앞에서만 삽입이 일어나는지 설명할 수 없다.

규칙중심의 관점에서 벗어나 제약중심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두의 탈락과 어중의 삽입을 관련짓는 설명은 한층 효과적인 논의가 될 수 있다. 특히 최적성이론에서 제안되고 있는 위치적 충실성이나 위치적 유표성의 개념을 도입한다면 규칙의 전도를 새롭게 해석할 수 있다.

(9) 가. 어두의 위치적 유표성 : *_w[li..., *_w[lj..., *_w[ni..., *_w[nj...

나. 어중음삽입의 위치적 무표성 : _w[...li, _w[...lj, _w[...ni, _w[...nj

(9)는 고광모(1991)에서 제안된 규칙의 전도를 위치적 유·무표성의 개념으로 바꾼 것이다. 한국어에서는, 소위 두음법칙에 의해, /i/와 /j/ 앞에서 공명음 /n/나 /l/가 탈락하는데 (9가)는 이러한 현상을 제약으로 표시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어두음 탈락은 17세기 근대한국어 시기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로 현대 한국어의 고유어와 한자어에서는 아직까지 (9가)와 같은 제약이 공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근대한국어 시기에 /i/와 /j/에 선행하는 어두의 /n/와 /l/가 (9가)와 같은 위치적 유표성의 영향을

받으면서 탈락되었고 그 결과로 대부분의 고유어와 한자어에서 /i/와 /j/ 앞의 /n/와 /l/는 (9나)와 같이 어중에만 분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비대칭적 분포로 말미암아 상대적으로 어중의 /n/와 /l/는 위치적 무표성을 갖게 된다.

위치적 무표성이 삽입자음 /n/, /l/로 확대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이러한 상황은 다음과 같은 제약위계로 설명할 수 있다.

- (10) 가. 어두음회피 : *_w[li, lj, ni, nj] > MAX-IO > *_w[...li, lj, ni, nj]
 위치적 유효성 > 충실성 > 위치적 무표성
 나. 어중음삽입 : DEP-IO{-(n, l/... __ i, j)} > DEP-IO(n, l/... __ i, j)¹⁰
 위치적 유효성 > 위치적 무표성
 ① DEP-IO(t, k, p.../... __ i, j) > DEP-IO(n, l/... __ i, j)
 ② DEP-IO(n, l/... __ e, a, u, w...) > DEP-IO(n, l/... __ i, j)

(10가)는 삽입이 일어나기 전의 제약위계로서, 위치적 유효성 제약이 충실성 제약(MAX-IO)을 지배하므로 어두의 /n/와 /l/가 탈락된다. (10나)는 상대적 유효성과 무표성이 삽입금지 제약(DEP-IO)으로 확대된 상태를 보여주는 제약위계이다.¹¹ (10나)의 위계를 가정한다면 어중에서 /i/와 /j/ 앞에 삽입되는 /n/와 /l/는 일반적인 삽입보다 하위의 제약을 위배하게 된다. 이러한 삽입의 무표성은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10나-①)과 같이 동일한 환경에 삽입된다 하더라도 여타의 자음들에 비해 약한 위배표시를 갖는다는 점이고, 둘째 (10나-②)와 같이 동일한 자음이 삽입된다 하더라도 여타의 환경에 비해 약한 위배표시를 갖는다는 점이다.

여기서 어중의 /n/, /l/ 삽입이 낮은 등급이지만 위배표시를 갖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위배표시는 앞서 살펴본 규칙중심의 전도(탈락규칙→삽입규칙)와 제약중심의 전도(어두의 유효성→어중의 무표성)를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규칙의 전도를 가정할 경우, 삽입규칙은 탈락규칙으로부터 유도되므로 추가적 부담이 없다. 그러나 전도규칙을 따르면 ‘누비/ + /이불/처럼 선행요소가 개음절인 경우에도 /n/가 삽입되어 *[누비니불]과 같이 잘못된 결과를 낳는다. ‘위치적 무표성’ 역시 ‘위치적 유효성’으로부터 유도된다. 하지만 삽입자음 /n/, /l/까지 확대되어 충실성과 상호작용을 할 뿐 본질적으로 충실성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여전히 DEP-IO를 위배하게 된다. 따라서 위치적 유효성과 무표성이 통시적인 변화를 겪는다 하더라도 최적성이론의 본질적 요소인 제약들의 상호작용은 적형의 선택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¹⁰ 이러한 제약위계는 일반적 환경에서 적용되는 제약이 특수한 환경에서 적용되는 제약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므로, Prince and Smolensky(1993: 81)에서 제안된 ‘파니니의 법칙’(Panini’s Theorem)을 따르지 않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두 제약은 서로 배타적인 환경에서 적용되므로 ‘파니니의 법칙’에 어긋나지 않는다.

¹¹ (10나)는 삽입자음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일반적인 제약위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는 한국어의 개별적 특징, 즉 /i/와 /j/ 앞에서의 어두음탈락으로부터 형성된 위계이므로, 어두의 탈락자음인 /n/와 /l/를 어중에 삽입하는 것이 언어보편적으로 무표적인 자음 /l/의 삽입보다 약한 위배표시를 갖는다.

4. ㄴ삽입의 분석

삽입을 제약위계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유효성, 충실성 외에 몇 가지 제약이 더 필요하다.

(11) 가. ALIGN-R(σ , Root)¹²

선행어근과 음절의 오른쪽 경계를 일치시켜야 한다.

나. SYLL-CONTACT (Davis and Shin 1999: 286)

음절 초성의 공명도가 선행음절의 종성보다 크지 않아야 한다.

(11가)는 형태적 경계와 운율적 경계를 일치시키는 제약으로서 그 동기는 Chung(1980: 57), 기세관(1990a, 1990b, 1991, 1999), 김정우(1998), Shin(1997)에서도 이미 지적되었다. 다만 ALIGN-R(σ , Root)은 다른 제약들과 상호작용을 할 뿐 삽입을 유발하는 결정적 요인으로 보기 힘들다. (11나) 역시 보편적인 제약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는 /n/가, 어떠한 경우에는 /l/가 삽입되는가를 결정한다.

앞서 살펴본 ‘누비이불’이란 단어로부터 분석을 시작해 보자. ‘이불’이 단독으로 실현될 경우 별다른 위배표시를 갖지 않으므로 /n/나 /l/의 삽입은 필요하지 않다.

(12) ‘이불’ /ipul/→[ibul]¹³

/ipul/	SYLL CONTACT	DEP-IO {-(n,l/... i,j)}	ALIGN-R (σ , Root)	DEP-IO (n,l/... i,j)
☞ a. i.bul				
b. ni.bul		*!		
c. ri.bul		*!		

‘누비이불’의 경우, 삽입형 [nubinibul/nubiribul]은 어중에 무표적인 삽입이 이루어졌지만 역시 [nubiibul]보다 많은 위배표시를 갖는다. 이는 [nubiibul]이 상위의 다른 제약들을 위배하지 않기 때문이다.

(13) ‘누비이불’ /nupi+/ipul/→[nubiibul]

/nupi+/ipul/	SYLL CONTACT	DEP-IO {-(n,l/... i,j)}	ALIGN-R (σ , Root)	DEP-IO (n,l/... i,j)
☞ a. nu.bi.i.bul				
b. nu.bi.ni.bul				*!
c. nu.bi.ri.bul				*!

‘밤알’과 같이 /i/와 /j/ 이외의 환경에서 삽입이 일어나지 않는 까닭도 위의 제약위계로 설명된다. 최적형인 [pamal]은 ALIGN-R를 위배함에도

¹² ㄴ삽입은 접두파생어나 통사구에서도 일어나므로 실제로는 ALIGN-R(σ , Prefix)이나 ALIGN-R(σ , Phrase)도 함께 설정해야 한다.

¹³ /i/와 /j/ 앞에서 일어나는 /n/, /l/의 음성학적 구개음화([ɲ], [ʎ])는 편의상 출력형의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다.

불구하고 최적형으로 선택된다.

(14) ‘밤알’ /pam/+al/→[pamal]

/pam/+al/	SYLL CONTACT	DEP-IO {-(n,l/... i,j)}	ALIGN-R (σ, Root)	DEP-IO (n,l/... i,j)
a. pa.mal			*	
b. pam.nal		*!		
c. pam.ral	*!	*		
d. pam.dal		*!		

‘숨이불’의 경우, 삽입형인 [sornibul]은 무표적인 삽입제약을 위배하지만, ALIGN-R를 준수하기 때문에 연음형인 [somibul]을 물리치고 최적형으로 선택된다. /l/나 다른 자음이 삽입된 후보형은 각각 상위제약인 SYLL-CONTACT와 DEP-IO{-(n,l/... i,j)}를 위배하므로 탈락된다.

(15) ‘숨이불’ /som/+ipul/→[sornibul]

/som/+ipul/	SYLL CONTACT	DEP-IO {-(n,l/... i,j)}	ALIGN-R (σ, Root)	DEP-IO (n,l/... i,j)
a. so.mi.bul			*!	
b. som.ni.bul				*
c. som.ri.bul	*!			*
d. som.di.bul		*!		

/l/가 삽입되는 ‘솔잎’의 경우, 분석이 약간 더 복잡해지는데 이는 삽입형 [solnip]과 [sollip]이 현재의 제약위계에서 동일한 위배표시를 갖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어에서 /ln/의 연쇄는 형태경계와 상관없이 항상 /ll/로 실현되므로 [sollip]이 선택되는 것은 삽입과는 별개의 문제이다. 삽입음 /l/의 선택은 Davis and Shin(1999)에서 설정된 SIMILARITY, MAX-IO(lat)를 위계에 추가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16) 가. SIMILARITY

치경 공명자음의 연쇄는 허용되지 않는다.

나. MAX-IO(lat)

입력형의 [lateral]은 출력형에서 실현되어야 한다.

(17) ‘솔잎’ /sol/+ip^h/→[sollip]

/sol/+ip ^h /	SYLL CONTACT	DEP-IO {-(n,l/... i,j)}	SIMILAR	MAX-IO (lat)	ALIGN-R (σ, Root)	DEP-IO (n,l/... i,j)
a. so.rip ^h					*!	
b. sol.rip ^h						*
c. sol.nip ^h			*!			*
d. son.nip ^h				*!		*
e. sol.dip ^h		*!				

분석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한국어의 음절초성에 /ŋ/이 올 수 없다고 본다면 ALIGN-R를 준수하기 위해 구태여 자음을 삽입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사당역’이나 ‘콩엿’처럼 선행요소의 발음이 /ŋ/인 경우에는 위의 제약위계는 잘못된 결과를 예측한다.

(18) ‘콩엿’ /kʰoŋ/+/jəs/→[kʰoŋnjətʰ]

/kʰoŋ/+/jəs/	SYLL CONTACT	DEP-IO {-(n,l/... i,j)}	ALIGN-R (σ, Root)	DEP-IO (n,l/... i,j)
●* a. kʰoŋ.jətʰ				
⊗ b. kʰoŋ.njətʰ				*
c. kʰoŋ.rjətʰ	*!			*
d. kʰoŋ.djətʰ		*!		

(18)은 지금까지 논의해온 제약위계에 대한 심각한 문제가 된다. 서두에서 살펴보았듯이 ㄴ삽입이 어느 정도 수의적인 현상이므로 실제의 출력형으로는 [kʰoŋnjətʰ]과 [kʰoŋnjətʰ]이 모두 나타난다 하더라도 삽입형 [kʰoŋnjətʰ]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제약위계만으로는 이러한 예외적 현상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힘들지만, 두 가지 정도의 대안적 논의가 가능하다.

첫째 이러한 예외는 ㄴ삽입의 유추적 성격으로부터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유추적 현상은 음운론적 자연성보다는 형태적 조건과 패러다임의 전체적 양상을 따르므로, 동일한 환경에서 삽입이 일어난 형태들 예를 들면 ‘호박엿, 밤엿’ 등을 닮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 [kʰoŋnjətʰ]과 [kʰoŋnjətʰ]만을 개별적으로 비교해 보았을 때, [kʰoŋnjətʰ]은 삽입금지를 위배할 뿐 [kʰoŋnjətʰ]보다 나은 것이 없는 후보형이다. 하지만 호박엿 ([hobaŋnjətʰ]), 밤엿 ([pamnjətʰ]) 등 유사한 음운론적, 형태론적 조건을 가진 단어들과 비교해 본다면 [kʰoŋnjətʰ]은 통일성을 준수하므로 [kʰoŋnjətʰ]보다 우월한 최적형으로서 선택될 수 있다.

이러한 통일성을 효과는 Kenstowicz(1996)에서 제안된 ‘일관성 지표’ (Uniform Exponence)를 통하여 포착할 수 있다.

(19) 일관성 지표 (UNIFORM EXPONENCE, Kenstowicz 1996: 382)

이휘 항목의 실현에 있어서 나타나는 차이를 최소화하라.

제약위계에 일관성지표를 도입함으로써 유추적 효과로 인한 삽입형 [kʰoŋnjətʰ]이 나타나는 원인을 적절히 설명할 수 있다.

(20) 콩엿-호박엿 /kʰoŋ/+/jəs/-/hopak/+/jəs/→[kʰoŋnjətʰ]-[hobaŋnjətʰ]

/kʰoŋ/+/jəs/ /hopak/+/jəs/	SYLL CONTACT	DEP-IO {-(n,l/... i,j)}	ALIGN-R (σ, Root)	UNIFORM EXPONENCE	DEP-IO (n,l/... i,j)
a. kʰoŋ.jətʰ hobaŋnjətʰ				*!	
⊗ b. kʰoŋ.njətʰ hobaŋnjətʰ					*

(20)의 두 후보형은 대부분의 제약을 준수하고 있지만 일관성지표와 무표적인 삽입에 대하여 엇갈린 위배표시를 갖고 있다. 입출력 대응관계의 충실성만을 고려한다면 두 번째 후보형은 결코 최적형이 될 수 없지만 ‘콩엿-호박엿-밤엿’과 같이 서로 관련된 단어들의 출력형-출력형 대응관계를 통하여 최적형으로 선택될 수 있다.

위와 같은 패러다임 기반의 분석은 유추적 현상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음운론적 자연성을 따르는 현상에서는 일반적인 유효성과 충실성만이 관련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엿물([jɔnmul])-엿기름([jɔt'k'irim])의 패러다임에서 ‘엿’은 각각 [jɔn-]과 [jɔt'-]으로 실현되어 일관성지표를 위배하게 되는데, 그 까닭은 ‘엿’이 후행 비음에 동화되어 [jɔn-]이 되거나 음절말에서 불파음화를 겪어 [jɔt'-]이 되는 것은 유추와는 상관이 없는 음운현상이기 때문이다.

둘째 논의는 (18)에서 최적형으로 선택된 첫 번째 후보형 [kʰonjɔt]을 반드시 비적형으로 간주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녹음자료나 설문지를 통해 ㄴ삽입의 경향을 조사한 음성학적 보고를 살펴보면 그 까닭을 알 수 있다. 김선철(2003)에 의하면 오히려 삽입정보다는 연음형이 더 선호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젊은 세대일수록 더 강하다고 한다. 특히 국경아 외(2004)의 보고에 의하면 성별과 상관없이 선행요소의 종성이 /ŋ/인 경우 삽입의 선호도가 낮아진다고 하는데, 이는 (18)의 분석과 서로 연관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18)에서 최적형으로 선택된 [kʰonjɔt]을 실제의 적형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것이다.

요컨대 ‘콩엿, 사당엿’과 같이 선행요소의 음절말음이 /ŋ/인 경우에는 때로는 삽입형이, 때로는 연음형이 선택되는데, 이는 ㄴ삽입의 유추적 성격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삽입이 일어나지 않아도 ALIGN-R을 위배하지 않기 때문에 연음형이 선택되기도 하지만, 유사한 음운론적 환경을 가진 삽입형으로부터 유추하여 패러다임 통일성을 따를 경우에는 삽입형이 선택된다.

5. 맺음말

지금까지 두음탈락과 무표적 삽입의 관계를 중심으로 위치적 유효성에 의거 한국어의 ㄴ삽입을 분석해 보았다. 서두에서 언급한 몇 가지 논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n/는 ‘유추적 확대’ 과정을 통하여 삽입된다고 볼 수 있다. 근대한국어 시기 이후 일어난 두음 /n/와 /l/의 탈락으로 인하여 어두의 유효성은 어중의 무표성으로 바뀌었다. 이러한 무표성으로 말미암아 어중의 /n/, /l/ 삽입은 일반적인 자음의 삽입보다 약한 위배표시를 갖게 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ㄴ삽입’으로 불려왔던 이 현상은, 엄밀히 말하자면 ‘ㄴ/ㄹ삽입’인 셈이다.

둘째, 자음의 삽입은 형태경계와 음절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충실성을 위배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삽입은 어두의 유효성에 의한 탈락과 반대로, 어중에서 일어나며 DEP-IO와 ALIGN-R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 음절경계와 형태경계를 일치시키려는 정렬제약이 위치적 무표성과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삽입은 어중에 전면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선행요소가 폐음절인 경우에만 필요하다. 따라서 삽입이 유추적 현상이라 할지라도 정렬 제약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셋째, 삽입자음이 /n/(숨니불)나 /l/(솔잎)인 까닭 역시 위치적 유효성(두음

탈락)의 변화에 의해 설명된다. 어중의 무표성은 어두의 유표성으로부터 유도되기 때문에 두음탈락의 영향을 받는 /n/와 /l/만이 낮은 위배표시를 갖는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논의에 따라 한국어에서 두음탈락이 사라진다면 삽입도 함께 약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대국어에서 두음탈락은 고유어와 한자어에만 적용될 뿐 여타 차용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요즘은 외래어와의 접촉이 많은 젊은 세대일수록 두음을 탈락시키지 않고 그대로 발음하는 경향이 강하다.

마지막으로 한자어의 ‘ㄴ/ㄹ삽입’은 본고의 논의로도 완전한 설명이 어렵다는 점을 언급할 필요가 있다. 1장에서 지적하였듯이 한자어에서는 후행요소의 모음이 /l/일 경우(상인, 길일, 은행이자, 한국인, 총인구 등)에 단어의 구성방식과 상관없이 삽입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본고에서 제안한 무표성은 그 환경 /l/와 /j/를 구별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원인을 설명할 수 없다. 현재로서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 없지만, 한자어는 각 음절의 본음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 음절의 음가와 관련된 제약의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광모. 1991. ㄴ첨가와 사이시옷에 관하여, *언어연구* 3, 서울대 언어학과, 1-22.
- _____. 1992. ㄴ첨가와 사이시옷에 대한 연구, *언어학* 14, 한국 언어학회, 31-51.
- 국경아 외. 2004. 서울말 ㄴ첨가 현상의 성별, 세대별 양상: 선호도 조사를 중심으로, *2004 대한음성학회 가을 학술대회 발표요지*, 211-215.
- 기세관. 1990a. *국어 단어형성에서의 /ㄹ/ 탈락과 /ㄴ/ 첨가에 대한 음운론적 연구*, 원광대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0b. 국어의 음운탈락 및 음운첨가에 대한 연구, *어학연구* 2, 순천대, 17-68.
- _____. 1991. 첨가음 /ㄴ/의 기능, *어문논총* 12·13, 전남대, 27-51.
- _____. 1999. 첨가음 ㄴ의 성격, *선청어문* 27, 서울대 국어교육과, 633-647.
- 김선철. 2003. *표준 발음 실태 조사 II*, 국립국어연구원.
- 김유범 외. 2002. ㄴ삽입 현상의 연구사적 검토. *어문논집* 46, 민족어문학회, 41-65.
- 김정우. 1994. *음운 현상과 비음운론적 정보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8. ㄴ삽입의 음운론과 형태론. *방언학과 국어학*(청암 김영태 박사 화갑기념 논문집), 태학사, 789-813.
- 성낙수. 1987a. 이른바 ㄴ뉘나기에 대하여, *한국어학과 알타이어학*, 대구: 효성여대출판부, 349-360.
- _____. 1987b. 이른바 한국어의 두음법칙 연구, *한글* 197, 한글 학회, 3-39.
- _____. 1995. 구개음화되는 /n/의 표기에 대하여, *동방학지* 89-90,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131-148.
- 안상철. 2001/2003. *최적성 이론의 언어 분석*, 한국문화사.

- 오정란. 2002. 국어 부동음소의 설정과 그 음운현상, 박영순 편, *21세기 국어학의 현황과 과제*, 한국문화사, 193-213.
- 이기문. 1972. *국어음운사연구*, 탑출판사.
- 최정순. 1986. *음운규칙의 단계적 적용에 대하여 : 탈락과 삽입을 중심으로*, 서강대 석사학위논문.
- 최현배. 1937/1971. *우리말본*, 정음문화사.
- 홍운표. 1994. *근대국어연구(1)*, 태학사.
- CHUNG, KOOK. 1980. *Neutralization in Korean*.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
- DAVIS, STURT and SEOUNG-HOON SHIN. 1999. The syllable contact constraint in Korean: An Optimality-Theoretic analysis.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8. 285-312.
- HOCK, HANS HENRICH. 2003. Analogical Change. In Brian D. Joseph and Richard D. Janda (eds.). *The Handbook of Historical Linguistics*, 441-460. Oxford: Blackwell Publishers.
- KANG, HYUNSOOK. 2002. On The Optimality-Theoretic Analysis of Korean Nasal-Liquid Alternations.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s* 11, 43-66.
- KAGER, RENÉ. 1999. *Optimality The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NSTOWICZ, MICHAEL. 1996. Base-identity and uniform exponence: alternatives to cyclicity. In J. Durand and B. Laks (eds.). *Current trends in phonology: models and methods*. CNRS, Paris X, and University of Salford. University of Salford Publications. 363-93.
- _____. 1997. Uniform Exponence: Exemplification and Extension. *Studies in Phonetics, Phonology and Morphology* 3. The Phonology-Morphology Circle of Korea. 1-23.
- KIM-RENAUD, YOUNG-KEY. 1974. *Korean Consonantal Phonology*. PhD Dissertation, University of Hawaii. 1991. Hanshin Publishing Co.
- LEE, PONGHYUNG. 2004. Korean n-Insertion as Domain-Initial Amplifier. *The Proceedings of Korean Linguistics*.
- PRINCE, ALAN and PAUL SMOLENSKY. 1993. *Optimality Theory: Constraint Interaction in Generative Grammar*. Ms. Rutgers University.
- SHIN, SEUNG-HOON. 1997. *Constraints within and between syllables: syllable licensing and contact in optimality theory*. Thaeaksa. co, Seoul.
- ZOLL, CHERYL. 1998. *Positional asymmetries and Licensing*. Ms. MIT.

Sunwoo Park
Department of Korean Language and Literature
Korea University
1 Anam 5-ga Seongbuk-gu
Seoul 135-701, Korea
E-mail: sunwoopark@korea.ac.kr

Received: July 24, 2005
Accepted: August 31, 2005